

축사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바라카에 수출한 원전의 성공적 준공으로 증명”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용홍택입니다.

먼저 2021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님,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님,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 하재주 한국원자력학회장님,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원자력 각계의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분들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 원자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주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수출한 원전의 성공적 준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학연이 함께 기울인 혼신과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4차산업 혁명의 가속화와 인공지능시대의 도래는 원자력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원자력계가 시의적 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안전, 미래시장, 융합, 소통을 앞으로의 원자력 정책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이 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원자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 한국형 SMR 모델을 조기에 개발함으로써 미래 신시장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성과 경제성이 보다 향상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수소생산, 우주, 해양에서의 활용 등 원자력의 쓰임새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소재·바이오 등 방사선 고부가 가치 융복합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을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력계 종사자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이곳 경주는 한수원 본사, 원자력 환경공단, 양성자 가속기, 월성 원전 등 국내의 핵심이 되는 원자력 시설이 집결된 원자력의 메카와 같은 곳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경주가 원자력 중심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감포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원자력단지 조성에 앞장서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김호진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원자력계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 이 시점에, 원자력 중심지 경주에서 연차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소통이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AIF**